

□ 사례명 : ‘클린예천’ 만들기 범 군민 환경보전실천 운동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 위 치 : 예천군 ○ 추진기간 : 2022. 1. 1. ~ 12. 31.(지속) ○ 사 업 비 : 23백만원(홍보비, 비품구입 등) ○ 사업내용 : ‘클린예천 만들기’를 위한 쓰담달리기 캠페인 전개
② 추진 경과	○ 2021. 3. 22. : 클린예천 만들기 3대 추진계획 수립 - 군민의식 개선, 환경개선 운동, 자원순환 체계 구축 ○ 2021. 7. 5. : “함께해요 클린예천!” 쓰담달리기 추진계획 수립 ○ 2021. 7. 13. : 전용밴드 개설 및 전용봉투 제작 ○ 2021. 7. 17. : 캠페인 활동시작(예천, 호명 마을주민부터) ○ 2022. 2. 13. : 매월 13일 쓰담데이 운영(쓰담에 일상(13)화) ○ 2022. 4. 4. : 클린예천만들기 자원봉사센터 업무협약 “예천농협”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운영」 업무협약 ○ 2022. 9. 5. : 「클린예천 보물마차」 운영 ○ 2022. 9. 7. : 「예천군클린예천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중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 매년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환경정화 활동에 대한 회의 → 쓰담달리기 필요지역 운영제도 실시 ○ 쓰담달리기 전용봉투 수령을 위해 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에 대한 주민 부담 → 주민 다수 이용 장소에 전용봉투 자율배부함 설치
④ 우수사례 내용	○ 군민 쓰담달리기 캠페인 붐 조성 ○ 쓰담달리기 전용봉투 30,000개 제작, 전용봉투 자율배부함 25개소 설치 ○ 쓰담달리기 체험후기 공유(네이버 밴드) 운영-1,533명 활동 ○ 매월 쓰담데이(쓰담달리기 일상의 날, 매월 13일) 운영 ○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4대 설치, ‘클린예천 보물마차’ 1대 운영
⑤ 성과	○ 쓰담달리기 캠페인 전개 - 2022년 1월~8월 553개 단체, 10,003명 참여 ○ 제30회 조선일보 환경대상 수상(범 군민 환경보전 실천운동) ○ 클린예천 밴드 회원 1,533명 활동 중 ○ 자원봉사센터 업무 협약 이후 청소년 참여 확대 ○ 영농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로 군 매립시설 사용연한 연장 ○ 재활용품 등 소각량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

‘클린예천’ 만들기 범 군민 환경보전실천 운동

1. 과제 선정 내용

- 민·관이 함께하는 범 군민운동(예천사랑 운동)을 진행하여 ‘살기 좋은 도시’, ‘명품도시 클린예천’의 이미지 제고와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
 - 환경클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 된 클린예천 만들기 추진
 - 군민의식 개선 및 환경개선을 동시에 추진 할 수 있는 **쓰담달리기*** 중점 추진
- * **쓰담달리기(플로깅)** : 쓰레기를 주우며 운동하는 환경 활동
- 공공장소(상가 밀집지역 및 공원, 산책로 등) 및 무단투기 우심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 및 환경오염 예방
 - 환경미화원 고용을 통한 불법투기 쓰레기 청소는 비용 및 실용성 면에서 한계가 있음
 - 주기적인 국토대청결 운동을 통하여 불법투기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나, 관(官)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속력과 파급력 저조
 - ‘**쓰담달리기 캠페인**’의 **범 군민 환경보전 실천운동**을 통해 불법투기 쓰레기를 수거함과 동시에 주민 인식 개선(쓰레기 안 버리고 줍기)의 계기가 될 것이라 판단

AS-IS	TO-BE
• 국토대청결 운동 정기적 추진 • ‘버리는 사람’과 ‘줍는 사람’이 나뉘어짐 • 환경단체에 국한된 환경운동 전개 • 환경에 대한 관심을 불만으로 토로	• 주민참여를 통한 쓰담달리기 지속 추진 • ‘버리는 사람’ 감소, ‘줍는 사람’ 증가 • 환경운동에 대한 주민 관심 및 참여도 증대 • 환경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

2. 문제원인 분석

- 종전 시행한 국토대청결 운동은 마을단체(환경단체, 새마을회 등)에서 의무적인 참석을 요하여 단체(주민)의 거부감 발생
- 한정된 장소에 국한되어 있음
- 1회성에 그쳐 깨끗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범 군민 환경보전 실천운동이 절실함
- 버리는 者, 줍는 者로 나뉘어져 불만 발생

3. 방안 마련 및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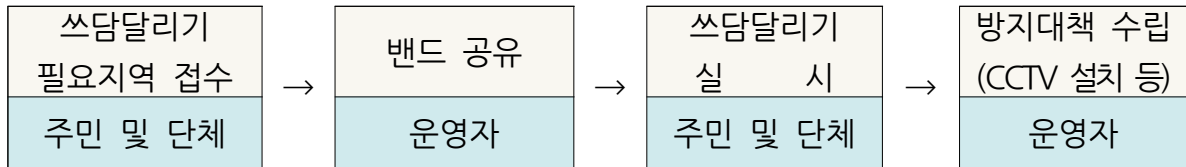
“Whenever, Wherever 쓰담달리기”

- 범 군민 환경보전 실천 운동 ‘쓰담달리기’ 캠페인 전개
 - ‘21년 8월 2일, 지자체장을 시작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쓰담달리기 이어가기’ 추진
 - ※ 쓰담달리기 이어가기 진행(군수→부군수→의장, 주민…)
 - 쓰담달리기와 뚜벅이(걷기활성화 프로그램) 연계 캠페인 추진
 - 쓰담데이(매월 13일, 쓰담달리기의 일상화) 운영
- ‘쓰담달리기’ 확산을 위한 주민 지원
 - 자원봉사시간 인증(자원봉사센터 업무협약 체결)
 - 전용봉투 제작(30,000매) 및 청소도구 대여
 - 전용봉투 자율배부함 지속 확대 설치(25개소)
-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클린! 예천!(밴드 운영)
 - 클린예천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동향 공유
 - 주민들 간 쓰담달리기 경험 공유를 통한 참여도 개선
 - 밴드 활동내역을 담은 월간 도서 발간
-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및 찾아가는 “달리는 보물마차” 운영
- 예천군 클린예천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중

4. 장애극복

- 매년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환경정화 활동에 대한 회의

☞ **쓰담달리기 필요지역 운영제도** 실시



- 쓰담달리기 전용봉투 수령을 위해 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에 대한 주민 부담

☞ 주민 다수 이용 장소(시가지, 공원 등)에 전용봉투 **자율배부함 설치**

- 환경정화 활동을 위한 주민 강제동원 반대 여론 형성

☞ 환경정화 활동 **참여 방식 변경**(마을단체→개인)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쓰담달리기 캠페인 추진실적 : 553회 10,003명

- 주민 참여율 **전년 대비 약 200%증가**(‘21년 참여인원 3,313명)
-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인부임 100백만원 절감
- 불법투기 쓰레기 약 20톤 수거(생활쓰레기 18, 재활용품 2)
- 재활용품 판매 수수료 14백만원

- **제30회 조선일보 환경대상 수상**

-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전국 최초 범 군민 환경보전 실천운동 ‘쓰담달리기’ 추진

- 클린예천 **밴드 회원 1,533명** 활동

- 자원봉사 센터 업무 협약을 통한 청소년 참여 확대

- 영농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로 군 매립시설 사용연한 연장

- 재활용품 등 소각량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

쓰담달리기 운동 참여

학교, 어린이집 참여



마을단체, 개인 참여



환경, 봉사단체 참여



환경, 봉사단체 참여



공공기관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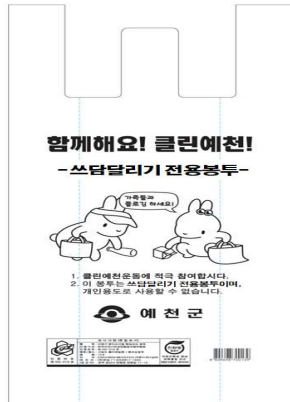


공공기관 참여



‘클린예천 만들기’ 주민지원

쓰담달리기 전용봉투



자율배부함



재활용품 무인회수로봇(캔·페트)



재활용품 무인회수로봇(빈병)



클린예천 보물마차



클린예천 보물마차



클린예천 보도자료

쓰담달리기 캠페인

시사일보 2022년 06월 17일 (금) 11면 지역

감탄(탄소!)하는 클린예천, 아나바다로 실천해요

예천군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감탄(탄소!)하는 클린예천, 나부터 실천해요!'라는 슬로건으로 제1호 녹색생활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매일 실천과제를 선정해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오는 27일 10시부터 '아나바다 나눌 실천 행사'를 군청 전정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아나바다는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고'의 줄임말로 내 가지는 줄이거나 가져올 다른 물건도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자원이 될 수 있어 군에서는 안 쓰는 물건들을 기부받아 행사 당일 필요한 사람

에게 무료로 나눔 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들은 누구나 20일까지 환경관리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의류, 도서, 전자제품, 장난감 등 사용 가능한 물건을 기부하면 된다.

이후 기 관공관과장은 "우리 나눌 실천은 자원 재활용은 물론 새 제품 구매로 인한 포장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필요한 물건을 무료로 구할 수 있어 환경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라며 "감탄(탄소!)하는 클린예천을 위해 '아나바다' 나눔 실천이 각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예천신문 기자 11.6 3 0.0 0

경안일보 2022년 06월 17일 (금) 14면 지역

예천군, 쓰담데이 '폐전전자 교환 캠페인' 전개

예천군은 지난 13일 '쓰담데이'를 맞아 호명면 산합문화공원에서 '폐전전자 담수기 캠페인'에 나섰다.

군민의 쓰담달리기(플로깅) 일상화를 위해 제1호 쓰담달리기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이날 쓰담달리기와 함께 주민, 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폐전전자 교환 행사를 했다.

특히 전전지는 수은·니켈·망간 등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어 일반쓰레기와 함께 소각되거나 매립될 경우 지반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폐전전자 교환을 통해 수은·니켈·망간을 100%로 분리·처리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수은·니켈·망간 등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어 일반쓰레기와 함께 소각되거나 매립될 경우 지반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환경관리과장은 "폐전 전자 교환 캠페인은 '쓰담'을 실천하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예천신문 기자 11.6 3 0.0 0

자율배부함

시사일보 2021년 10월 13일 (수) 09면 지역

"쓰담 달리기로 클린 예천 만들어요"

클린운동 확산 분위기 조성
플로깅 봉투 배부함 설치

예천군은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쓰담 달리기' 운동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플로깅 봉투 배부함을 설치했다.

플로깅이란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는 잡는 것으로 손 우라발로 '쓰담 달리기'로 불리고 있으며 7월부터 공직자들이 솔선 실천해

주민들 관심을 유도 하고 있다. 군은 범 군민운동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예천군청 후원을 비롯 한 예천읍, 향천체육공원, 도청 신도시 농협수련장 앞, 송평면 공중화장실 앞 등 곳곳에 플로깅 전용 봉투 배부함을 설치했다.

뿐만 아니라 플로깅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전용 봉투를 무료로 나눠주는 등 클린예천 운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했다.

예천신문 기자 11.7 3 0.0 0

시사일보 2021년 10월 13일 (수) 12면 지역

예천군, 플로깅 전용봉투 자율 배부함 설치

예천군은 군청 등 4월부터 추진 중인 '쓰담 달리기' 운동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플로깅 봉투 배부함을 설치했다.

플로깅이란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는 잡는 것으로 손 우라발로 '쓰담 달리기'로 불리고 있으며 7월부터 공직자들이 솔선 실천해

주민들 관심을 유도 하고 있다. 군은 범 군민운동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예천군청 후원을 비롯 한 예천읍, 향천체육공원, 도청 신도시 농협수련장 앞, 송평면 공중화장실 앞 등 곳곳에 플로깅 전용 봉투 배부함을 설치했다.

뿐만 아니라 플로깅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전용 봉투를 무료로 나눠주는 등 클린예천 운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했다.

예천신문 기자 11.7 3 0.0 0

재 활용 활성화

"빈용기 무인회수기 이용하세요"

호명면 농협하나로마트 수변점 지하 1층 고객센터 맞은편에 빈용기 회수기를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소개했다.

군은 빈용기 무인회수기 설치·운영을 위해 예천농업협동조합과 상호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설비 점검을 마쳤다.

빈용기 무인회수기 사용 방법은 빈 소주, 맥주병 등을 투입하면 모양과 무게 등을 기계가 자동으로 인식해 보증금 계산 후 영수증이 발급되고 발급 받은 영수증을 고객센터로 가져가면 보증금을 돌려준다.

다만, 와인·드링크병 등 보증금 대상이 아닌 용기거나 보증금 대상 용기더라도 파손된 경우에는 인식되지 않아 보증금 지급 대상에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빈용기 무인회수기 운영으로 주민들이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해당 안내센터 직원을 필요로 할수록 효과가 기대된다"며 "자주 재활용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환경대상 수상

예천군, 제30회 조선일보 환경대상 '대상' 수상

예천군에 최근 서울 중구 조선일보 1층 미술관에서 열린 제30회 조선일보 환경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사진>

'조선일보 환경대상'은 환경부와 조선일보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공공기관 단체를 발굴 격려하기 위해 1993년부터 제정한 국내 최고 권위 환경운동 공로상으로 올해는 187개 자치 단체와 30개 환경단체가 응모했다.

예천군은 깨끗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 및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민관이 함께하는 '클린예천 만들기'쓰담 달리기 범군민 환경보전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대상을 받았다. 쓰담달리기 운동은 지난해 7월 김학동 군수의 행정지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677개 단체 1만250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이루며 지속적인 군민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함께해요! 클린예천' 밴드를 운영하고 있다.